
2012 방콕 현지시장 여건분석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수출전략처 해외마케팅팀

목 차

1. 현지시장 여건분석

가. 국가개황

나. 시장특성

다. 시장진출여건

라. 한국농식품 수출동향

마. 한국농식품 시장진출여건

바. 식품수출 유의사항

※ 자료 출처: www.kati.net 무역정보 수출입 동향,
www.globalwindow.or.kr 국가정보 등.

1. 현지시장 여건분석

가. 국가개황

- 지역 : 태국(The Kingdom of Thailand)
- 면적 : 514천km²(한반도의 약 2.3배)
- 인구 : 6,700만명
- 언어 : 태국(공용어), 영어(상용어)
- 민족 : 태국계(75%), 중국계(14%), 말레이계(11%)
- 건국일 : 1782년 4월 6일(현 왕조 출범일)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 국가원수 : 국왕(Phumiphon Adunyadet) / 총리(Yingluck Shinawatra)

1) 경제주요지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GDP(US\$bn)	247.1	272.4	263.9	317.7
성장율	4.9	2.5	△2.3	7.8
1인당 GDP(US\$)	3,758.9	4,107.7	3,940.9	4,719
실업율	1.4%	1.4%	1.5%	1.1%

2) 경제동향

- 인플레이션, 석유가격 및 이자상승률로 경제성장률 다소 주춤
- 특히 증가하는 국내식품가격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예상
 - 팜오일의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태국의 전체적인 식품가격이 상승
- 높은 석유가격, 미국 및 EU선진국의 더딘 경제회복, 최저인금인상 정책에 따른 물가상승이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3) '10년 한-태 무역수지 : 22.9억불('09년 12.8억불)

- 對태국 주요수출 현황('10)
 - 철강, 석유화학, 전자부품, 금속광물, 수송기계, 정말화학제품 등
- 對태국 주요수입 현황('10)
 - 임산물, 농산물, 전자제품, 광물성연료, 석유화학제품, 비철금속 제품 등

나. 시장특성

1) 태국은 동남아의 허브시장으로 국제교역의 선두주자

- ASEAN 10개국 중 FTA추진 등 시장개방에 적극적
 -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외국기업에 우호적 정책 추진
- 인도차이나 반도의 무역중심국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 2003년부터 AFTA발효로 아세안 국가간 무관세 수출기회 제공

2) 식품 제조업만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벌어드리는 식품산업의 강대국

- 파인애플 통조림, 주스, 냉동새우, 해산물, 냉동닭 등의 수출은 세계 top 10에 들어감¹⁾
- 좋은 품질의 식품공급자로서의 이미지 정착에 성공²⁾
- 공업화의 진전으로 제조업 중 식품산업의 비중 감소추세이나 식품 가공기술로서 냉동, 통조림, 건조식품의 기술력은 인정

3) 가공원료의 부족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편

- 주요 수입농식품이 대두박 등의 동물사료, 참치, 대두, 우유 등으로 가공원료가 주를 이룸

4) 빈부격차가 심한 시장

- 방콕 및 주변도시의 소득이 국가전체 평균소득의 2배
-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GDP의 48.9% 차지
- 상류층은 전체 인구의 약 12%로 대부분은 중국계임

5) 외식비율이 높은 시장

- 전문직, 도시근로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외식 지출비용이 증가
- 특히, 태국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지면서 외식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1)&2) : “태국식품동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7, p2

다. 시장진출 여건

- 1) AFTA 등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관세 인하에 따라 농식품 수출 국가간 경쟁 심화
 - 중국·아세안 FTA 체결과 일본의 농산물 수출드라이브 정책 등으로 동남아 수출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 2) 계층 및 도농간 소득수준 격차 심화로 고가품과 저가품 시장 공존
 - 저소득층은 대형할인매장, 고소득층은 백화점에서 구매
- 3)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채식식품, 건강식품 등이 인기
 - 과일, 채소 등으로 갈아만든 주스상품이 소비자 사이에 인기
 - 웰빙경향이 새로운 사업에 나타나면서 유기농산물의 경작이 약 40% 증가
 - 고품질 및 안전한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슬람식문화의 상징인 Halal시장에 영향을 미침
- 4) 최근 대형마트에 이어 미니마트, 편의점이 증가하는 추세
 - 미니마트와 편의점의 증가는 스낵의 소비촉진 효과 예상
- 5) 즉석식품 시장매출 급속 확대
 - '10년 태국의 즉석식품 시장매출은 15,000억 달러로 연평균 20% 증가
 - 5년 후에는 시장규모가 13억3, 000만 달러에 이를 전망
 - 즉석식품이 인기 요인
 - 과거 즉석식품의 가격은 지나치게 높아 특정 계층만 목표로 했으나
 - 이제는 각 기업에서 다수 시장을 목표로 해 제품 가격을 낮춤
 - 바쁜 도시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간편한 즉석요리를 선호함
 - 즉석식품 제조업체들의 기술 투자 및 꾸준한 메뉴 개발로 맛과 영양에서 소비자들의 신뢰 상승
 - 태국의 대표적 식품관련 기업 CP Group이 전국에 5,000개가 넘는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면서 즉석식품의 보편화에 공헌

라. 한국농식품 수출동향

○ '11년 對태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한 296,546만US\$

○ 농산물

- 과실류 : 단감, 배, 사과를 중심으로 수출이 되고 있으나 저가의 중국산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못함

▪ 사과 : ('10) 34천불 → ('11) 68천불, 98% ↑

▪ 배 : ('10) 46천불 → ('11) 120천불, 162% ↑

▪ 단감 : ('10) 365천불 → ('11) 349천불, 4% ↓

- 채소류 : 딸기, 채소종자, 김치가 수요 수출품이며 딸기의 경우 태국에서 소비가 확산되고 있어 수출확대 유망품목이나, 김치의 경우 현지에서 제조되는 김치로 인해 수출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딸기 : ('10) 989천불 → ('11) 1,210천불, 22% ↑

▪ 채소종자 : ('10) 427천불 → ('11) 435천불, 2% ↑

▪ 김치 : ('10) 120천불 → ('11) 131천불, 9% ↑

- 사료 : 닭, 돼지 등 가축수요가 많아 태국의 경우 기타사료용 조제품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배 합 사 료 : ('10) 429천불 → ('11) 637천불, 49% ↑

▪ 사료첨가제 : ('10) 98천불 → ('11) 184천불, 88% ↑

▪ 사료조제품 : ('10) 10,773천불 → ('11) 9,794천불, 9% ↓

- 소스류 : 한국음식이 인기를 끌면서 식당용 식재료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지인들의 사용도 증가하여 전년대비 95% 증가한 529천불

▪ 고 추 장 : ('10) 105천불 → ('11) 161천불, 54% ↑

▪ 기타소스 : ('10) 44천불 → ('11) 167천불, 280% ↑

▪ 된장 : ('10) 32천불 → ('11) 49천불, 50% ↑

- 커피류 : 인스턴트 커피 믹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태국은 전년대비 705%가 증가한 4.8백만 불을 달성

- 인삼류 : 태국은 인삼 함유량이 3%를 초과할 경우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어 큰 신장률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전년대비 56%가 성장한 774천불을 달성
- 주 류 : 소주, 변성 에틸알콜 위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소주의 경우 식당용 소비가 대부분으로 현지인의 한국 식당 이용이 많아지면서 수출이 증가하였고, 에틸알콜은 화장품 제조용으로 수출되고 있음. 이 외에 막걸리 등이 수출되어 전년대비 38% 증가한 802천불을 기록
 - 소주 : ('10) 311천불 → ('11) 415천불, 34% ↑
 - 변성 에틸알콜 : ('10) 67천불 → ('11) 203천불, 204% ↑
 - 막걸리 : ('10) 41천불 → ('11) 66천불, 60% ↑
- 음 료 : 식품제조업이 강한 태국은 홍수피해의 영향으로 한국산 물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62% 증가한 276천불을 달성
- 과자류 : 한국산 인지도 제고로 전년대비 30% 증가한 1.9백만 불 수출
 - 비스킷 : ('10) 896천불 → ('11) 1,346천불, 50% ↑
 - 콘플레이크 : ('10) 338천불 → ('11) 304천불, 10% ↓
 - 빵 : ('10) 101천불 → ('11) 143천불, 41% ↑
- 면류 : 라면이 주 수출품이며 전년대비 51% 증가한 2.4백만 불을 수출
 - 라 면 : ('10) 1,378천불 → ('11) 1,935천불, 40% ↑
 - 파스타 : ('10) 72천불 → ('11) 344천불, 376% ↑
- 혼합조제식료품 : 식품제조업이 발달하여 각종 조제품들이 수출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126% 증가한 85백만 불 수출
- 아이스크림 : 빙그레 아이스크림의 진출로 태국은 145% 증가한 192천불 수출

○ 수산물

- 어 류 : 참치를 중심으로 기타어류, 대구, 고등어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며 일본 원전사태로 인해 한국산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46% 증가한 148백만 불 수출
 - 참 치 : ('10) 93,930천불 → ('11) 135,109천불, 44% ↑
 - 대 구 : ('10) 2,133천불 → ('11) 3,434천불, 61% ↑
 - 고 등 어 : ('10) 1,576천불 → ('11) 3,009천불, 91% ↑
 - 이빨고기 : ('10) 1,499천불 → ('11) 3,467천불, 131% ↑
- 연체동물 : 어획량 부족으로 오징어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55% 감소한 2.1백만 불 수출
 - 오징어 : ('10) 4,474천불 → ('11) 1,401천불, 68% ↑
- 해조류 : 태국 김 스낵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른 김의 수출증가로 전년대비 9% 증가한 15.6백만 불 수출
 - 마른 김 : ('10) 13,310천불 → ('11) 14,599천불, 10% ↑
 - 조미 김 : ('10) 600천불 → ('11) 675천불, 12% ↑

○ 축산물

- 육 류 : 한국의 구제역으로 인해 기존에는 태국으로 돼지고기 내장 수출이 활발하였으나 현재는 수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수출 미미

○ 임산물 : 목제품 또는 석제품이 일부 수출되고 있음

< 한국 對태국 농식품 수출통계 >

부류별

(단위 : 톤, 천불, %)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전 체	129,422	192,353	150,292	296,540	16.1	54.2
○ 농식품	24,233	65,530	43,126	123,107	78.0	87.9
<신선>	1,260	4,425	1,387	5,233	10.1	18.3
- 채소류	137	1,452	147	1,692	7.8	16.5
- 김 치	42	120	39	131	△6.9	8.7
- 인삼류	27	495	38	775	42.0	56.5
- 화훼류	0	6	0	3	△44.0	△44.1
- 과실류	524	1,556	582	1,853	11.0	19.1
- 버섯류	1	2	1	3	△12.8	29.7
- 돼지고기	342	254	351	242	2.5	△5.0
- 가금육류	26	19	25	10	△2.8	△47.2
- 산림부산물	161	521	204	525	26.5	0.8
<가공>	22,973	61,104	41,739	117,874	81.7	92.9
- 가공식품	22,221	60,727	40,296	117,436	81.3	93.4
* 면 류	498	1,573	864	2,378	73.7	51.1
* 소스류	188	272	311	529	65.0	94.5
* 주 류	399	583	495	803	24.3	37.8
* 과자류	401	1,486	461	1,934	14.8	30.1
* 연초류	3	36	32	227	1,032.9	538.1
* 유제품	1	5	57	95	7,102.8	1,841.5
- 목 재 류	751	377	1,443	438	92.0	16.0
○ 수산식품	105,190	126,824	107,166	173,433	1.9	36.8
- 어 류	92,883	101,181	97,073	148,170	4.5	46.4
- 연체동물	3,040	4,773	845	2,136	△72.2	△55.2
- 해조류	1,001	14,305	1,006	15,575	0.5	8.9
- 갑각류	24	207	57	529	141.1	155.5
- 기 타	8,242	6,359	8,185	7,023	△0.7	10.4

□ 주요 품목별

(단위 : 톤, 천불, %)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전 체	129,422	192,353	150,292	296,540	16.1	54.2	
○ 농식품	24,233	65,530	43,126	123,107	78.0	87.9	
김치	42	120	39	131	△6.9	8.7	
인삼	27	495	38	775	42.0	56.5	
채소류	파프리카	0	0	0	0.0	0.0	
	딸기	111	989	127	1,210	14.9	22.3
	고추	3	14	4	18	13.3	31.5
	채소종자	5	427	5	435	△3.4	1.7
	멜론	0	0	1	5	0.0	0.0
	토마토	1	2	4	8	268.0	420.6
과실류	배	22	46	54	120	146.7	162.0
	유자차	2	6	0	0	△100.0	△100.0
	사과	17	34	28	68	64.1	98.1
	단감	225	365	194	349	△14.0	△4.4
	감귤	22	23	7	12	△67.3	△49.9
화훼류	난류	0	0	0	0	0.0	0.0
	장미	0	0	0	0	0.0	0.0
	백합	0	0	0	0	0.0	0.0
	국화	0	0	0	0	0.0	0.0
버섯류	선인장	0	6	0	3	△44.0	△44.1
	팽이	0	0	0	0	△100.0	△100.0
	새송이	1	2	1	3	△11.7	29.8
돼지고기	342	254	351	242	2.5	△5.0	
닭고기, 오리고기	26	19	25	10	△2.8	△47.2	
가공식품	밀린	3	35	14	156	419.3	343.3
	커피조제품	61	591	544	4,765	796.7	705.7
	라면	401	1,378	553	1,935	37.9	40.4
	설탕	0	0	0	0	0.0	0.0
	소주	238	311	311	415	30.5	33.7
	음료	187	106	451	276	140.9	161.7
	비스킷	224	896	305	1,346	36.2	50.1
	맥주	16	11	0	0	△98.9	△98.2
	마요네즈	0	1	0	2	122.2	127.4
	고추장	79	105	120	161	51.7	53.9
	전통주	50	58	59	78	17.4	35.1
- 막걸리	47	41	56	66	20.1	60.2	
유제품	생우유	0	0	0	0	0.0	0.0
	우유조제품	0	0	0	0	0.0	0.0
○ 수산식품	105,190	126,824	107,166	173,433	1.9	36.8	
어류	참치	88,229	93,930	89,762	135,109	1.7	43.8
	고등어	2,051	1,576	3,907	3,009	90.5	91.0
	삼치	25	28	46	65	80.7	135.0
	붕장어	0	0	0	0	0.0	0.0
	넙치	0	2	57	442	47,025.8	24,176.5
연체동물	오징어	2,970	4,550	738	1,401	△75.2	△69.2
	굴	44	132	70	272	58.8	105.5
	바지락	0	0	0	0	0.0	0.0
	전복	0	2	0	1	△52.5	△53.5
해조류	피조개	0	0	0	0	0.0	0.0
	김	958	13,910	996	15,373	4.0	10.5
	미역	28	101	3	28	△90.4	△72.1
	톳	6	61	0	0	△100.0	△100.0
기타	다시마	0	2	0	3	33.9	74.4
	천일염	0	0	0	0	0.0	0.0

□ 주요 품목별(금액순)

(단위 : 톤, 천불, %)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전 체	129,422	192,353	150,292	296,540	16.1	54.2
○ 농식품	24,233	65,530	43,126	123,107	78.0	87.9
○ 수산식품	105,190	126,824	107,166	173,433	1.9	36.8
참치	88,229	93,930	89,762	135,109	1.7	43.8
김	958	13,910	996	15,373	4.0	10.5
커피조제품	61	591	544	4,765	796.7	705.7
고등어	2,051	1,576	3,907	3,009	90.5	91.0
라면	401	1,378	553	1,935	37.9	40.4
오징어	2,970	4,550	738	1,401	△75.2	△69.2
비스킷	224	896	305	1,346	36.2	50.1
딸기	111	989	127	1,210	14.9	22.3
인삼	27	495	38	775	42.0	56.5
넙치	0	2	57	442	47,025.8	24,176.5
채소종자	5	427	5	435	△3.4	1.7
소주	238	311	311	415	30.5	33.7
단감	225	365	194	349	△14.0	△4.4
음료	187	106	451	276	140.9	161.7
굴	44	132	70	272	58.8	105.5
돼지고기	342	254	351	242	2.5	△5.0
고추장	79	105	120	161	51.7	53.9
권런	3	35	14	156	419.3	343.3
김치	42	120	39	131	△6.9	8.7
배	22	46	54	120	146.7	162.0
전통주	50	58	59	78	17.4	35.1
- 막걸리	47	41	56	66	20.1	60.2
사과	17	34	28	68	64.1	98.1
삼치	25	28	46	65	80.7	135.0
미역	28	101	3	28	△90.4	△72.1
고추	3	14	4	18	13.3	31.5
감귤	22	23	7	12	△67.3	△49.9
닭고기, 오리고기	26	19	25	10	△2.8	△47.2
토마토	1	2	4	8	268.0	420.6
멜론	0	0	1	5	0.0	0.0
선인장	0	6	0	3	△44.0	△44.1
새송이	1	2	1	3	△11.7	29.8
다시마	0	2	0	3	33.9	74.4
마요네스	0	1	0	2	122.2	127.4
전복	0	2	0	1	△52.5	△53.5
파프리카	0	0	0	0	0.0	0.0
유자차	2	6	0	0	△100.0	△100.0
난류	0	0	0	0	0.0	0.0
장미	0	0	0	0	0.0	0.0
백합	0	0	0	0	0.0	0.0
국화	0	0	0	0	0.0	0.0
팽이	0	0	0	0	△100.0	△100.0
자당	0	0	0	0	0.0	0.0
맥주	16	11	0	0	△98.9	△98.2
생우유	0	0	0	0	0.0	0.0
우유조제품	0	0	0	0	0.0	0.0
붕장어	0	0	0	0	0.0	0.0
바지락	0	0	0	0	0.0	0.0
피조개	0	0	0	0	0.0	0.0
툰	6	61	0	0	△100.0	△100.0
천일염	0	0	0	0	0.0	0.0

마. 한국농식품 시장진출 여건

- 한류로 인한 국가이미지와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
 - 삼성, LG 등의 진출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형성
 -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음식 및 제품에 대한 구매증가로 이어짐
- 타 국가에 비해 구매력 평가 우위
 - 중국산 농식품에 비해 “안전한 먹을거리”로 인식
 - 품목에 따라 품질, 가격경쟁력 보유
- 한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소비층 존재
 - 고품질 고가격으로 구매가능한 상류층 존재
 - 10~20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국제품 선호도가 높은 편
- 한-태 FTA 협상타결로 향후 농식품에 대한 관세인하 전망

바. 식품수출 유의사항

1) 식품관련 정부기관과 법

- 태국에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식품관련 법은 Food Act(1979)가 있음. 이 법에 의하면 태국 공중보건부는 법의 집행기관이 되며 공중보건부는 식품법 이행을 위해 세부적인 규정을 공포하게 됨
-
- 공중보건부 산하 태국 식약청(FDA)의 Food Control Division이 국내 식품 제조와 수입식품 허가를 담당함
- 태국 식품법에 따르면 식품은 아래와 같이 네 종류로 구분함
 - 구체적 통제식품(Specially Controlled Foods): 이 분야에 포함된 식품은 등록이 필요하며 식품의 표준품질, 명세, 포장, 라벨링, 제조방식에 대해 규제함. 현재 이 분야에 포함된 식품은 14종류가 있는데, 분유, 우유, 조미료 등이 이에 해당함
 - 표준식품(Standardized Foods): 표준식품은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품질과 라벨링이 태국 공중보건부에서 지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이에 해당하는 식품은 주로 태국 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인데 차, 커피, 식용류, 생선소스 등이 있음
 - 라벨부착식품(Food Required to Bear Label): 상기 두 종류 식품보다 규제가 덜한 분야로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덜한 제품들임. 라벨 부착을 통제하는 주요 이유는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임. 관련제품으로는 빵, 캔디, 인스턴트 식품 등이 있음
 - 일반식품(General Foods): 상기 세 개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일반식품에 포함됨. 식품 등록은 필요 없으나 위생, 안전, 라벨링, 광고 등에 제약이 있음. 관련 제품으로는 육류, 생선, 계란, 채소, 과일, 밀가루 등이 있음

2) 식품 규제절차

① 판매 전 규제(Pre-marketing Control)

- 태국 식품 제조업체들은 사업시작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함. 태국 식약청(FDA)은 공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한 후 면허를 발급하게 돼 발급된 면허는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함
- 제품을 수입 시에도 면허가 필요함. FDA에서는 수입면허 발급 전에 저장시설 등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게 됨. 면허를 획득한 수입업체는 FDA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여러 식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면허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함
- 전시회 등 특정한 사안으로 식품을 수입할 경우 일시적인 수입 면허를 발급하기도 함. 수입제품에 대한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품구매를 위한 샘플 또는 연구실 테스트용임
- 구체적 통제식품의 수입업자는 수입 전에 제품을 등록해야 함. 제품 등록 신청서는 식약청 Food Control Division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소재 수입업체는 지방 공중보건부 사무실에 제출하면 됨. 신청서 접수부터 제품 등록까지 걸리는 총 소요시간은 약 1개월이며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제품 상세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제 등록은 어려움
- 제품 라벨링은 태국 공중보건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수입제품은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식품 모두 표준화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라벨에 소비자를 호도하는 사진, 상표, 사인 등을 포함할 수 없으며 “premium grade” 또는 “grade A” 등의 문구는 일반적으로 금지함
- 제품 라벨의 언어는 태국어로 돼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본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함
 - 식품명
 - 식품 일련번호(제품 등록번호 또는 라벨 승인 번호)
 - 제조국명 및 제조업체/포장업체의 이름 및 주소
 - 식품 구성성분
 - 핵심성분은 비중이 높은 순서부터 퍼센트로 표시
 - 방부제, 착색제, 방향제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표시
 - 제조 연월일, 만료 연월일

- 필요 시 보관방법, 조리방법
- 기타 사용 시 주의사항 등

② 판매 후 규제(Post-marketing Control)

- 태국 식약청의 Inspection Division은 규정에 의해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함.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식약청은 식품생산, 유통, 저장 등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기도 함
- 상기 규정에 의한 정기적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식품 감시활동도 실시함. 식품감시활동은 농업부, 과학기술환경부, 산업부, 총리실, 방콕 시청 등이 참여하는데 식약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식약청 검사관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장에서 식품 샘플을 채취해 의학과 학부의 Food Analysis Division에 전달해 유해물질, 농약잔류물, 중금속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식품광고를 공식적 광고매체를 통해 실시할 경우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식품의 품질과 효용성에 대해 소비자를 호도하는 광고는 금지하고 광고승인은 식약청 The Advertisement Control and Public Relations Division이 담당함

3) 시사점

- 한류 영향으로 태국에 한국식품이 더욱 폭넓게 보급되는 추세임. 식품을 태국으로 수출 시에는 복잡한 규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식품 수출 시 태국 측 바이어가 제품 등록과 면허취득 등을 담당하는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와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해 제공해야 함.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상세한 내용은 태국 식약청(www.fda.moph.go.th) 등 유관기관을 접촉해 확인할 수 있음

아세안 수출현황 및 전망

가. 2011년도 수출현황

1) '11년 수출액 : 전년 대비 36% 성장한 981백만불

- 아세안 지역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36% 급증한 981백만불로 신선농산물(145백만불), 가공식품(560백만불), 수산식품(275백만불)으로 구분됨
- 특히, 가공식품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신선농산물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급성장('10년 성장률 33%→'11년 54%)
- 지역별로는 베트남(74% ↑), 태국(41% ↑), 말레이시아(44% ↑), 인도네시아(23% ↑)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성장세, 싱가포르, 필리핀은 보합
- 베트남은 가공식품 위주의 일반 소비재, 태국은 식품가공을 위한 원재료 중심(참치, 김 등)으로 높은 수출비중 차지

2) 주요 국가별 수출액

(단위 : 백만불)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66	271.9	97	115.6	94.8	87.9

3) 국가별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불)

구 분	주요 수출 품목
베 트 남	담배(43.8), 황다랑어(10), 과자류(10), 닭고기(9.1), 면류(8.2), 조제분유(7.6), 인삼류(7.3), 오징어(6.8), 버섯류(4.9), 커피크리머(1.7)
태 국	가다랑어(109), 조제품기타(53), 황다랑어(22), 김(14.6), 사료용조제품(9.8), 커피엑스(4.7), 유지조제품(4.4), 이빨고기(3.5), 대두(3.4), 고등어(3), 라면(1.9)
필 리 핀	과당시럽(17), 커피크리머(8.8), 라면(5.8), 조제품기타(5.3), 옥수수전분(4), 자당(2.5), 혼합조미료(2.1), 아이스크림(2.1), 곡류조제품(2), 소스류(1.7)
인도네시아	커피프리머(34.6), 사료용조제품(16), 새털(6.2), 자당(5.2), 핵산(2.6), 라면(2.3), 유지조제품(1.7), 대두(1.6), 담배(1.4)
말레이시아	조제품기타(18.3), 옥수수전분(10.7), 옥수수박(5.2), 단감(4), 라면(3.3), 대두박(2.9), 이빨고기(2.6), 유지조제품(2.3), 건조굴(2.1), 쌀기(1.6)
싱가포르	맥주(6.8), 담배(6), 쌀기(5.2), 커피크리머(5.2), 건조굴(4.8), 이빨고기(4.8), 조제품기타(4.6), 홍삼(4.2), 라면(2.4), 단감(1.7), 버섯류(1.3)

4) 수출실적 : 아세안전체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10.1.1~12.31		2011.1.1~12.31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전 체	529,819	719,823	501,429	981,052	-5.4	36.3
○농식품	368,127	521,584	342,880	705,499	-6.9	35.3
<신선>	44,285	94,358	49,393	144,972	11.5	53.6
- 채소류	2,908	19,045	2,567	14,078	-11.7	-26.1
- 김 치	459	1,640	485	1,840	5.8	12.2
- 인삼류	835	10,784	916	15,071	9.7	39.8
- 화훼류	5	77	16	144	190.4	85.7
- 과일류	11,074	14,978	11,793	16,557	6.5	10.5
- 버섯류	3,106	5,420	4,917	8,568	58.3	58.1
- 돼지고기	424	354	368	375	-13.1	6.1
- 가금육류	17,803	19,753	18,594	21,793	4.4	10.3
- 산림산물	7,671	22,307	9,737	66,546	26.9	198.3
<가공>	323,842	427,226	293,487	560,527	-9.4	31.2
- 가공식품	306,325	416,258	274,437	551,376	-10.4	32.5
* 면 류	6,221	22,638	8,585	33,338	38.0	47.3
* 소스류	2,764	9,124	3,885	14,259	40.6	56.3
* 주 류	12,876	13,291	14,805	15,535	15.0	16.9
* 과자류	6,475	25,915	6,580	26,506	1.6	2.3
* 연초류	3,881	48,035	5,593	68,588	44.1	42.8
* 유제품	1,168	9,721	1,283	8,879	9.8	-8.7
- 목재류	17,517	10,968	19,050	9,151	8.8	-16.6
○수산식품	161,692	198,239	158,549	275,553	-1.9	39.0
- 어 류	121,255	137,360	124,897	206,841	3.0	50.6
- 연체동물	7,199	17,298	4,290	18,459	-40.4	6.7
- 해조류	1,750	18,362	1,927	22,287	10.1	21.4
- 갑각류	161	2,071	523	6,228	223.7	200.6
- 기 타	31,327	23,148	26,912	21,738	-14.1	-6.1

나. 2012년도 수출전망

1) 지역경제 및 시장여건

□ 낙관적 요인

- 인도네시아 6.3%, 베트남 5.8%, 태국 5%, 필리핀 5% 등 '12년 아세안 지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맑음
- 태국은 수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세금감면 등의 혜택 제공을 통해 농업, 서비스업의 회복 가속화로 빠른 정상화 전망
- 필리핀은 9400만 인구에 기반을 둔 IT와 식품 위주의 소비재 수요 확대를 통한 튼튼한 내수기반 유지가 가능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위주의 대외교역에 따른 불안요인 상쇄
- 베트남의 경우, 한류열풍에 따른 한국산 농식품의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기반이 매우 튼튼하여 한국 식품 전반에 대한 수요가 매년 급증할 수 있는 여건 확보
- 말레이시아 단감, 싱가포르 딸기 등 각 지역별로 대표 한국 농산물이기 정착되었으며, 현지 수입 벤더들의 판매에 대한 자신감 확보로 품목 다양화를 위한 기본 여건 조성
- CJ, 인삼공사, 롯데제과 등 한국 식품기업의 아세안 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조직 구성 및 운영으로 유관 품목 수출확대 기대
- K-POP, 드라마 등으로 인한 비즈니스 한류 효과로 인해 한국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치가 더불어 상승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문화에 대한 높은 수용도에 따라 한국 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비관적 요인

- 베트남 경제성장 정책에 따른 급격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소비성향 감소 우려(물가상승률 전망치 : 베트남 9%)
- 태국 홍수 피해로 인한 식품 생산시설 손실 및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 악화 등으로 전체적인 가계 소비심리 위축 전망

- 필리핀은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이 심화될 경우 IT, 식품 등 소비제품의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짐
- 싱가포르는 170여개의 한식당 활성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진출 활성화, 대형 유통업체 내 한국 식품 상설코너 확대 등 식문화에 대한 인식 및 판로 기반은 구축되어 있으나, 협소한 시장 자체가 한계
-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수입 여건 악화
 - 수입·검역을 위한 항구 제한 및 서류 심사 강화 등으로 수입통관 절차 강화 및 소요시간 증가

□ 종합의견

- 베트남을 중심으로 소스, 면류, 음료 등 가공식품 위주, 태국을 중심으로 참치, 김 등 식품 가공 원재료 위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단감, 딸기, 배, 사과, 포도 등 과채류가 아세안 지역의 주요 수출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
- 아세안 지역의 비즈니스 한류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한류영향으로 한국 농식품과 식문화에 대한 선호도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12년 수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11년도 수출 성장세와 유사한 35%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가공식품은 30%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신선농산물/수산물의 성장세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

2)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 개 관

○ 신선농식품

- 인삼류, 버섯류, 과실류, 산림부산물 등을 중심으로 40%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과실류의 경우, 국내 생산 및 가격에 대한 해외 시장에서의 민감도가 높아 불안요소가 상존하나 딸기, 단감, 사과, 포도 등 신선 과실류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버섯류는 팡이버섯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 매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송이 버섯의 경우에도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인삼류는 국내 대표 브랜드 업체의 공격적인 아세안 시장 진출 공략에 따라 그동안 인삼수출 불모지였던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수출 성장 예상

○ 가공식품

- 한류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가 지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면류, 소스류, 음료류, 커피류 등 일반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재 상품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또한 아세안 지역 대형 유통매장 한국 가공식품 입점 확대 추세 및 한국 식품 기업들의 현지 진출로 인한 수출 활성화 등에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30%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수산식품

- 태국의 참치, 김 등 식품가공 원재료용 수출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소규모이나 캐비어, 훈제연어, 전복 가공제품 등 신규 품목 출시는 수산식품 수출증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참치 등 원양 어업의 어획량에 따라 수출액의 증감폭이 커지는 불안요소가 있으나, 현 추세를 이어 간다면 약 3억불 수준의 수출 전망

□ 품목별 전망

주요품목	'11 실적	'12전망	전망근기
딸기	8.5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및 가격변동에 현지 시장의 민감도가 매우 높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한국산 딸기에 대한 선호도 및 인지도 확보 ○ '11년 수출가격 상승에 의해 주요 수출시장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액 감소 ○ 인도네시아는 20%이상의 성장세로 신규 수출 시장으로서의 가능성 내재
배	1.8백만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신고배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로 현지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어 경쟁 심화 ○ 지역별 고급 과실 전문 매장 입점 확대로 중국산 신고배와의 차별화 마케팅 전개 - 말레이시아 MBG, 인도네시아 SOGO 등
단감	7.8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47%, 말레이시아 1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쟁품목인 샤론품종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물량 증가예상
버섯류	8.6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팡이버섯을 중심으로 대형유통매장 입점 판매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새송이 버섯도 고급 식자재료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 ○ 수출업체-벤더의 1대1 매칭으로 시장가격 유지 안정화 및 품질향상
김치	1.8백만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 유통매장에 정식 입점 판매중이나 소비량 증가에는 한계 ○ CJ 아세안 지역본부 설치 및 시장개척 활동으로 점차 입점매장 증가 추세
인삼	15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브랜드 업체의 아세안 수출조직 구축 ○ 수출업체 자체 인삼홍보 강화(버스광고, 빌보드 광고 등) 및 인삼세미나 등 수출지원 강화 ○ 한국인삼공사의 인도네시아 본격 진출 가속화

가공식품	560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로 인한 소비자 노출빈도 확대로 소스류, 면류, 커피류, 음료류 등의 유통매장 입점 및 상설코너 운영 확대 ○ 특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주류(17%, 소스류(56%), 면류(47%) 등이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 ○ 아세안 지역 내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중국산 대체 수요 증가 예상 ○ 가계 구매력 증가 및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평가 기준(안전성) 변화로 한국식품 선호도 증가
수산식품	275백만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량에 따른 수출 증감폭이 큰 참치의 수출 비중이 높아 불안요소가 상시 존재하지만, 조미김, 갑각류 등의 지속 성장세 유지 ○ 캐비어, 훈제연어, 전복가공품 등 신규 품목의 신규 시장 진출